

수품물결

통권 297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06 2024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시민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석문방조제에서 당진시민들과 함께 해변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열린 참여로 많은 시민들이 깨끗한 바다를 생각하며 열심히 정화활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켜요”



해경, 석문바다 부유물 성분 결과 '미공개'



당진환경운동연합, 석문방조제에서 환경정화활동

- ▶ 발행일 2024. 6. 10.
- ▶ 발행인 손창원
- ▶ 편집인 유형민
- ▶ 편집위원 팽말숙, 박희선, 조순형
임수진, 김정진, 박은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3 이달의 시

| 목계장터 / 신경림

4. 지역환경이슈1

|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켜요”

6. 지역환경이슈2

| 해경, 석문바다 부유물 성분 결과 ‘미공개’

8. 지역환경이슈3

| 당진환경운동연합, 석문방조제에서 환경정화활동

9. 지역환경이슈4

| [성명서] 산림 파괴 반환경적 토목사업 골프장 건설 중단하라

10. 지역환경이슈5

| 바다로, 하천으로 '나도 시민과학자'

11. 지역환경이슈6

| “당진의 환경을 지키는 데 써주세요”

12. 충남환경이슈1

| “더 이상 산업단지·산폐장 안돼... 충남도 산단 승인 신중해야”

13.충남환경이슈2

| 세종보 농성장 지지방문 및 숙박 농성 동참

14. 지구환경! 관심이슈?

| 지구를 위해, 멋을 위해...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16. 전국환경이슈1

| “대형 원전 3기, SMR 1기 추가”...11차 전기본 실무안 공개

18. 전국환경이슈2

| ‘10년 뒤’를 묻자 아이는 꿈 대신 ‘소멸’을 떠올렸다

19. 5월 살림살이

20. 5월 활동소식

22. 6월 주요사업 계획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24. 광고



목계장터

신경림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흠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 별도 서러운 방물 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툇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시집 「농무」, 1973)

작가소개

작가 신경림

신경림 (1935년 4월 6일~ 2024년 5월 22일) 시인이자 문학인. 1956년에 등단하여 '낮달', '갈대', '석상' 등의 시를 발표하였다. 데뷔한 이래로 10여년동안 시를 쓰지 않았으나, 1965년 겨울 동료 시인이자 절친 김관식의 손에 이끌려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면서 다시 시를 쓰게 되었다. 1973년 만해문학상, 1981년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하였다. 초, 중, 고등학교 국어나 문학 교과서에도 이 시인이 지은 몇몇 시들이 수록되었는데, '농무'와 '가난한 사랑 노래', '목계장터' 등이 교과서를 읽은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켜요”

환경의날 기념 환경교육 한마당 성황리 개최



세계환경의날 행사에서 유기농 매실청 담그기에 참여하는 모습



플리마켓 신청한시민이 참여해 판매하는 모습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기 위한 ‘환경교육 한마당’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일 당진시 주최,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지역환경교육센터 주관으로 일상 속 환경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과 실천방안을 알리기 위한

환경교육 한마당이 당진시청 야외무대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유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지구 환경’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를 비롯한 가족 단위의 플리마켓 장터 및 신나는 에너지 캠퍼스 투어가 진행됐다.

특히, 플리마켓에서는 사전에 신청한 가족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던 옷, 신발, 책, 장난감 등을 5000원 이하로 판매하며, 업사이클의 가치를 익혔다.

플리마켓에 참여한 김담희(8) 어린이의 가족 김나연(41) 씨는 “플리마켓을 준비하면서 아이와 함께 쓰지 않는 옷이나 책, 장난감들을 정리하고, 리사이클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환경을 지키는 실천을 했다는 것에 뿌



재생에너지 바로 알기 체험부스 운영



어린이 환경그림그리기 참여한 학생에게 시상하는 모습

듯함을 느낀다. 앞으로 당진시가 자연과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텀블러를 이용한 음료 나눔 및 일상에서 발생하는 물품을 활용한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 및 부대행사가 진행돼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가족 단위 참가객들로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 참여한 정시완(8) 어린이 가족은 “환경 문제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체험으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지역 내에서 많이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출처 : 당진신문 일부 발췌]

해경, 석문바다 부유물 성분 결과 ‘미공개’

어민 “한 달 새 바다에 검은 물질 세 차례 목격”
지난달 29일 해양경찰연구센터 성분 분석 결과 나와
평택해경, 정밀 분석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의뢰



5월 14일 제보를 받고 왜목마을 선착장을 방문한 김정진 사무국장이 어민이 바다에서 떠온 해상오염물질 시료를 유리병에 담고 있다.

지난달 14일 석문면 앞바다에 정체불명의 검은 부유물이 떠다녀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었다. 평택해양경찰서(이하 평택해경)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에 검은 부유물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가운데, 최근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 평택해경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자세한 말을 아꼈으며, 정밀한 검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바다에 둥둥 뜬 정체불명 물질

지난달 석문면 교로리와 장고항 일대 바다에 검은색 물질이 떠다녀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었다.

석문면 어민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석문면 교로리 앞바다에 검은색 물질이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유물은 몇 시간 뒤 사라졌지만, 이 같은 모습이 최근에 자주 목격됐다.

처음에 이를 목격한 어민 A씨는 “4월에도 검은색 물질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규모가 적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 검은색 부유물이 있었다”고 말했다.

어민과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검은 부유물이 4월과 5월에 몇 차례 더 바다에 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목격된 날짜는 4월 6일, 다음으로 5월 2일, 그리고 이번 5월 14일이다. 검은 물질은 몇 시간 뒤 사라졌다.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측은 “세 차례 발견됐는데, 발견된 시기의 공통점이 파도가 세지 않고 유속이 천천히 흐를 때”라면서 “물이 천천히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에는 바닷물이 빠지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관찰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돼 관찰되자 어민은 지난달 14일 ‘바다에 부유물이 떠다닌다’며 평택해경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평택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시료를 채취했고,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평택해경 수사 결과는 아직

지난달 29일 그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평택해경은 분석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분석 결과는 지난달 29일에 나왔는데,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면서 “국과수 결과는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 분석 결과에 대해서 평택해경은 “현재 석문 앞바다 부유물 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센터의 성분 분석 결과를 이야기 해주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바다에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바다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주어질 수 있다.

일부 어민 ‘석탄 유출’ 주장해 논란 일기도

한편 이 과정에서 일부 어민이 “바다에 떠 있던 검은 물질은 석탄가루”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장고항 어촌계장에 따르면, 장고항 쪽에서도 검은 물질이 발견됐으며 비가 온 다음날 이런 물질이 바다로 흘러 내려왔다. 이 검은 물질이 석탄이고,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탄을 실은 배가 화력발전소에 하역하는 과정에서 석탄가루가 바다에 유출된다는 것이다. 장고항 어촌계장은 “당진화력(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에서 바다로 석탄 가루가 유출됐고, 석탄 가루가 가두리 양식장까지 흘러들어와 우럭이 죽어나갔다”면서 “당진화력에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또 다른 어민은 지난달 20일 본지에 “아직은 선부른 주장으로, 평택해경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교로리 어촌계장은 “이 부유물이 석탄인지, 다른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평택해경이 의뢰한 성분 분석 결과를 보고 문제를 제기해야지, 아직 아무 근거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슈화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어민의 당진발전본부에서 유출된 석탄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난달 23일 당진발전본부는 “당진발전본부는 지역 공기업으로서 어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재 평택해경에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조사 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당진시대]

당진환경운동연합, 석문방조제에서 환경정화활동



당진환경운동연합은 5월 18일 석문방조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환경해변정화활동을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이 지난 18일 석문방조제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올해 첫 번째로 진행된 이날 해변 환경정화활동은 시민들의 열띤 참여 열기로 당초 모집 인원을 넘어선 56여명의 어린이, 학생,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시민과 함께’라는 이름으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다.

버스와 승용차를 이용해 석문방조제에 도착한 시민들은 석문방조제 너머 바다쪽 해변의 돌 틈에 버려진 채 방치된 스티로폼 부표, 그물, 밧줄 등 폐어구와 페트병, 비닐봉투, 캔 등 낚시꾼과 관광객 등이 버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

을 펼쳤다.

손창원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올해 첫 해변환경정화활동에 40명의 참가자를 모집했는데 신청인원이 초과돼 일부 시민들은 승용차를 이용해 참가했다”며 “인원 초과로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6월에 진행될 두 번째 해변정화활동을 미리 신청한 상황”이라고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전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진행된 첫 번째 해변 환경정화활동에 이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시민과 함께’이라는 이름으로 6월 22일 두 번째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대호방조제 해변에서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당진신문]

[성명서] 산림 파괴 반환경적 토목사업 골프장 건설 중단하라



당진시는 지난 5월 3일 당진시청에서 오성환 시장과 (주)유준산업 서상금 대표이사가 '대호지 체육시설(골프장)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당진시가 지난 3일 (주)유준산업과 투자업무협약을 맺고 대호지면 두산리 일대 임야 162만여㎡에 27홀 규모의 대형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을 파괴하는 반환경 토목사업인 골프장 건설 중단을 촉구한다.

산림을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은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생태위기를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반환경적 토목사업이다. 인류 최대의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시급히 줄이고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여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하며 산림은 가장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숲은 수많은 야생생물의 서식처로 생태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지하수를 함양하는 등 생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산림을 파괴하고 잔디로 바꾼 골프장은 '녹색사막'이라 불린다. 비옥한 토양을 걷어내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뒤덮여 잔디 이외에는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골프장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성한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뽑아 쓰면서 막대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살포하여 오염된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는 반환경 시설이다. 환경부가 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전국 골프장 545곳에서 사용한 농약이 213톤에 달한다.

골프장이 건설되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처럼 말한다. 전국에 540개 이상의 골프장이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골프장이 건설되어 운영되는 농촌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는가?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에서는 골프장 건설과 운영이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 지역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에 나서야 할 당진시가 산림 파괴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행태를 규탄한다. 대규모 산림 파괴로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생태위기를 심화시킬 반환경적 토목사업인 골프장 건설 추진을 중단하라.

2024년 5월 15일
당진환경운동연합

바다로, 하천으로 '나도 시민과학자'

학생 참여자와 함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진행



지난 5월 26일 생물다양성 5차시는 당진천에서 수달의 흔적을 찾아 관찰하는 모습



지난 5월 19일 생물다양성 4차시는 음섬포구 갯벌에서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는 모습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참여자 20명이 매주 일요일마다 당진의 바다와 들, 하천을 돌아다니며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나도 시민

과학자가 열띤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다.

4월 20일 발대식을 가진 '나도 시민과학자'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사업 참여 학생들은 4월 28일 '시민과학의 이해와 자연관찰 기록 방법' 교육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참여 학생들은 5월 12일과 19일에 신평면 음섬포구 갯벌을 방문해 조류(12일), 대형저서생물(19일)에 대한 교육과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했다.

5월 26일에는 당진천을 찾아 수달흔적조사를 실시하고 6월 2일에는 송산면 당산생태공원을 찾아 식물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했다.

6월 9일에는 다시 당진천에서 민물어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6월 16일 토종씨앗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글: 사무국]

‘당진의 환경을 지키는 데 써주세요’

당진푸르지오2차아파트 부녀회 어울림 한마당 수익금 기부



2023년 11월 3일 열린 당진2차 푸르지오아파트 어울림 한마당.

지난 5월 9일 당진2차 푸르지오아파트 부녀회에서 당진의 환경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20만원의 기부금을 당진환경운동연합에 전해왔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삶을 지키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녹색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주민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더욱 힘내서 당진의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사무국]

당진2차 푸르지오아파트 부녀회에서 보내온 글

2023년 11월 3일, 당진 2차푸르지오에서 어울림 한마당을 했습니다. 마을주민들과 함께 뽑기수익금으로 후원했습니다.

당진 2차 푸르지오 입주민과 주변에 사는 사람들 모두 함께 참여한 아나바다장터, 집에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이 사서 재활용하면서 환경을 생각한 시간이었어요. 태권도시범단 공연과 아이들의 댄스공연, 함께하는 놀이로 입주민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환경을 위해 기부하고 싶어요.

많은 아이들과 입주민들이 수익금을 환경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당진환경이 더 발전하기를 당진2차푸르지오 입주민들이 응원합니다.

“더 이상 산업단지·산업폐장 안돼. 충청남도 신단 승인 신중해야”

충남환경운동연합·농본 “피해는 지역 주민이, 이익은 기업이 얻는 구조 막아야”



지난 5월14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청에서 산업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충남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충남에 더 이상의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은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4일 충청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산업단지라는 이름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승인을 그만하고 기존 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 방안을 마련하라”며 “산업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고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건설 허기는 결국 폐기물처리시설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SK그린컴플렉스는 충남 서산, 아산, 예산, 공주, 당진에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서산 대산(2023년 9월 20일)과 아산 선장(2024년 4월 30일)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천안 제5 일반산업단지에는 지정폐기물매

립장이 추진되고 있다. 천안 동면에도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운동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산업단지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무분별한 산업단지 허가로 충남 곳곳이 산업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단지 설치가 꼭 필요하다면 도지사의 책임 아래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그 뒷감당을 하게 해선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중략)

충남도가 산업단지 승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자체장의 개발 욕구와 기업의 이익이 맞물리고 있다.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업의 수단이 되고 있다”라며 “산업단지 승인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폐기물 발생량을 과도하게 부풀리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충남도가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세종보 농성장 지지방문 및 숙박 농성 동참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들이 지난 30일 오후 세종보 농성장을 찾아 보 철거, 금강 재자연화에 동참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세종보 상류 300m 금강 하천부지에서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들이 지난 30일 오후 세종보 농성장을 찾아 보 철거, 금강 재자연화에 동참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30일 오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0여 명의 운영위원들이 세종보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

세종보 농성장을 찾은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들은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충남 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과 임도훈 활동가,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으로부터 세종보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게 된 이유, 세종보 철거의 필요성, 금강 세종보 투쟁의 역사 등에 대

한 설명을 듣고 금강 재자연화, 보 철거에 뜻을 모았다.

충남환경연합의 지지방문 이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희출 사무국장과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진진 사무국장이 세종보 농성 동참 의지를 담아 31일 아침까지 하루동안 농성장 천막에서 숙박 농성을 진행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도 생물다양성의 날인 22일 신우용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국의 활동가 30여 명이 세종보 농성장을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 멸종위기종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물이 흘러라'라는 문구가 적인 현수막을 들고 금강물에 들어가 보 철거, 금강 재자연화 추진의 결의를 다졌다.

[글 : 사무국]

지구를 위해, 멋을 위해...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원 낭비하고 미세플라스틱 양산
패스트패션 폐해 신랄하게 비판
명품 브랜드의 속임수도 고발
유행 말고 착취 없는 멋을 위해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와 패스트패션에 맞서는 제로웨이스트 의생활
이소연 지음 / 돌고래 / 1만7000원

한창 꾸미기 좋아할 나이의 젊은 여성이 돌연 더는 옷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를 쓴 이소연 작가 이야기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콘텐츠 에디터로 일하며 생태전환 매거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더는 새 옷을 사지 않기로 결

심한 까닭과 그 결심 이후 달라진 삶을 소개한다.

지은이는 2019년 4월 어느 날 매장에서 마음에 쪽 드는 패딩을 발견한 뒤 거기 붙은 가격표를 확인했는데, 그 멋진 옷의 가격이 고작 1.5달러, 우리 돈으로 2천원이 채 안 되는 액수였다. 재료값과 인건비, 유통비 등을 감안해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가격표는 그로 하여금 옷이라는 것에 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했고, “화려해 보이던 내 날개가 가짜라는 걸” 깨닫게 했다. 가짜 날개를 붙태워야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는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해양환경단체 시세퍼드 코리아 활동가이기도 한 지은이의 결심 배경에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 그를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하겠다는 각오가 있다. 세계 물 소비량의 20퍼센트가 옷을 만드는 데 쓰이며, 지구 전역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약 10퍼센트가 패션 분야에서 나온다. 패스트패션 매장을 거닐며 값싼 옷을 고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갈수록 옷을 짧게 입고 더 많이 더 자주 산다.”

사실 “우리가 입는 옷 대부분은 석유로 만들어진다.” 비닐 포장을 뜯는 순간 코를 자극하는 강력한 ‘새 옷 냄새’가 바로 석유 냄새다. 합성섬유 옷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한다. 하수구를 거쳐 강과 바다로 흘러든 미



세플라스틱 조각은 플랑크톤에게 먹힌 뒤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가 결국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온다. 미세플라스틱의 50퍼센트 이상이 섬유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이나 모직 같은 천연섬유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전 세계에서 쓰는 농약의 10퍼센트, 살충제의 25퍼센트가 목화 재배에 사용된다. 털이나 가죽 제품을 위해 동물을 착취하는 행위의 문제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른 한편 패스트 패션의 배후에는 열악한 상황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때로 목숨까지 잃는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다.

지은이는 더 많은 옷을 더 빨리 사서 버리게 만드는 패스트패션의 메커니즘에 특히 날을 세우지만, 이른바 명품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백화점에 입점한 의복 브랜드의 20만원짜리 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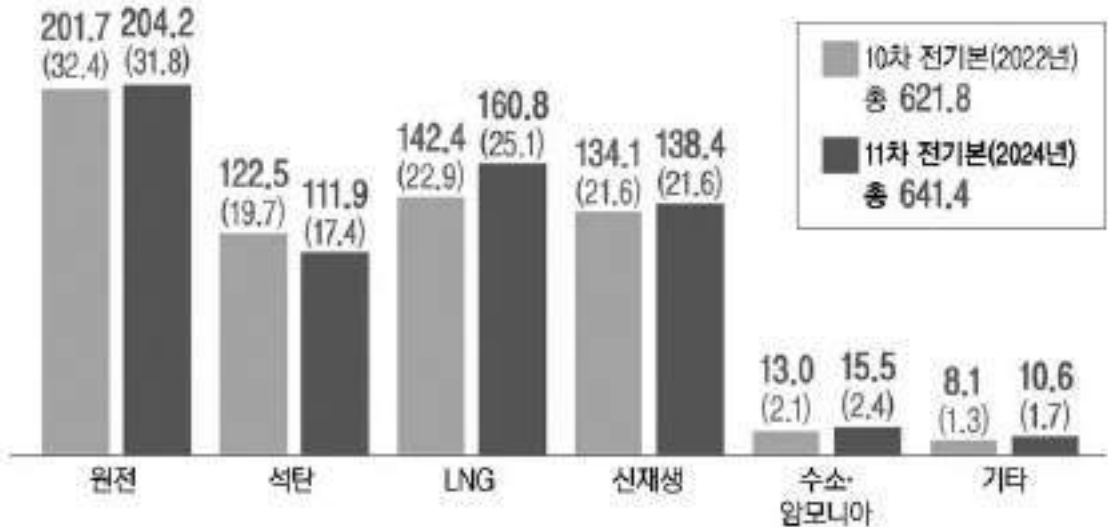
셔츠와 지하상가의 1만원짜리가 원단부터 제작 과정까지 모조리 똑같을 수 있다”는 게 패션 업계 종사자의 솔직 고백이다. 2018년 영국의 고급 브랜드 버버리는 약 422억원 상당의 재고를 모두 불에 태워 버렸다. 다른 브랜드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낭비인가. 해마다 옷은 1000억 벌 이상 만들어지고 330억벌씩 버려진다.

책의 뒷부분에서 지은이는 유행이라는 이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도 ‘자기만의 멋’을 가꿀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준다. 중고 거래 이용하기, 남들과 옷 바꿔 입기, 엄마 옷 재활용하기, 옷 대여 서비스 이용하기 같은 방법들과 제로웨이스트 옷장 실현에 참고할 만한 콘텐츠 소개는 지은이처럼 옷 안 사기 실천에 나서려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듯하다.

〈한겨레〉 최재봉 선임기자

“대형 원전 3기, SMR 1기 추가”…11차 전기본 실무안 공개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단위: TWh(비중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실무안을 31일 공개했다. 총괄위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규 원전이 전기본에 포함된 건 2015년 수립된 7차 전기본 이후 처음이다.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과 전망, 발전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전기본은 2년 주기로 수립된다. 앞서 2022년 8월에 10차 전기본이 나왔지만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이라 사실상 이번이 윤석열 정부 첫 전기본으로 불린다.

총괄위는 2038년까지 10.6기가와트(GW)를 생산할 추가 설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 등 기존 계획에 포함된 설비로 충당할 수 있지만 2031년부터는 설

비가 전력 수요보다 부족하다고 봤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우선 4.4GW를 대형 원전에 할당했다. 총괄위는 발전량이 1기당 1.4GW인 원전 ‘APR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기 건설이 가능한 물량이라고 판단했다.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 준공까지 약 167개월(13년1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본 실무안대로 4.4GW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당장 올해부터 부지 확보에 착수해야 한다.

총괄위는 다만 구체적으로 원전 몇 기를 건설해야 하는지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정동욱 총괄위원장은 “호기당 1.4GW의 대형 원전 최대 3기가 건설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나 2038년까지의 건설 기수는 부지 확보, 건설 경제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가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간별 부족 설비 물량 및 총당 전원 단위 GW

2031~2032년	2.5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 등
2033~2034년	1.5	차기 전기본(12차)에서 결정
2035~2036년	2.2	소형모듈원자로(SMR) 0.7+수소 전소 등 추후 결정 1.5
2037~2038년	4.4	신규 대형 원전 1.4×3+기타 0.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SMR이 포함됐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MW) 이하인 원자로로, 대형 원전 100분의 1 크기 이하 수준으로 축소된 원자로를 말한다. 추가 설비 중 원전 할당량(4.4GW)을 제외한 나머지 6.2GW 중 0.7GW은 SMR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총괄위는 밝혔다.

현재 세계적으로 상용화한 곳이 없고 개발 중임에도 총괄위는 상용화 실증을 위해 2034~2035년 SMR 건설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시점도 못박았다. 정 위원장은 “2034년 하반기 첫 번째 모듈 설치를 시작으로 총 4개 모듈을 순차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MR 1기는 통상 4개 모듈로 구성된다.

이 밖에 추가로 필요한 설비 중 2.5GW는 2032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차기 12차 전기본 등에서 결정하라고 총괄위는 권고했다. 정 위원장은 “7차 전기본 이후 최초로 신규 원전 필요 물량을 도출해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건설했다”며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는 이미 반영돼 있어 재생 에너지를 제외한 무탄소 전원 중 가장 경제적이다”고 평가되는 대형 원전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은 이번 전기본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온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38.4테라와트시(TWh)로 10차 전기본(134.1TWh)보다 늘어났지만 비중은 10차 전기본과 같은 21.6%다.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는 10차 65.8GW에서 72.0GW로 상향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10차 전기본에 이어 11차 전기본 또한 정부가 여전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보다 중앙 집중형·대형 화력발전 중심으로 꾸려졌다”며 “다양한 연구기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최소 36%(110GW)에서 최대 53%(199GW)의 재생 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데이터센터 등을 이유로 수요 전망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그대로임에도 목표 발전량이 소폭 증가했다는 이유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실무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글 그래픽 출처: 경향신문]

‘10년 뒤’를 묻자 아이는 꿈 대신 ‘소멸’을 떠올렸다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청소년·어린이들이 탄소중립계획과 녹색성장기본법이 위헌이라고 적은 팻말을 들고 있다

어느 날 10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거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년 남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 말이었다. 1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장래 희망 대신 ‘소멸’을 떠올리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거리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기 기후소송 당사자인 박서율(10)과 엄마 김정덕 활동가는 21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서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외쳤다. 이날 헌재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 옆에는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과 김서경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들이 함께 섰다. (중략)

이들은 현재 기후위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위기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정부 측 논리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공동대리인단 이치선 변호사는 (중략) “정부는 파리협정의 원칙,

즉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곡해하고 있다”면서 “이 원칙은 원래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더 강화된 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이를 각국이 사정에 따라 알아서 감축하면 될 뿐이고 어떤 감축목표도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헌재 심판대 오른 기후소송…“정부 계획 부실” vs “선진국 못지않아”

이날 2차 변론에서 최종 진술자로 나선 김서경, 황인철, 한제아 세 명의 청구인들은 손수 짚은 메리골드 종이꽃을 들고 “개인의 역량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안전한 삶을 바라며 헌재 앞에 섰다”고 말했다.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이다.

이들은 (중략)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재난 앞에서 우리가 각자 알아서 버텨야 한다는 것만을 깨닫게 할 뿐”이라며 “대체 국가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이하 생략)

[출처 : 경향신문 일부 발췌]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4년 5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20,185,370	인건비	급여	5,825,000
회 비	개인회비	5,065,000		퇴직적립금	420,700
	법인회비	70,000		사회보험료	529,250
	계	5,135,000		계	6,774,95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877,580	경상비	복리후생비	-
	법인후원	-		세금과공과금	159,490
	계	877,580		소모품비	-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지급수수료	317,960
	계	-		기타운영비	243,100
				계	720,55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1,200
	계	-		생태보전사업	1,776,900
보조금	보조금사업	10,000,000		생활환경사업	993,500
	계	10,000,000		조직 회원사업	431,400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홍보사업	311,700
	계	-		모금사업	-
기타수입	기타수입	4,620		연대사업	385,203
	계	4,620		기타사업	-
				계	3,899,903
전입금	전입금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계	-	계		
차입금	차입금		이월액	이월액	24,807,167
	계	-		계	24,807,167
월수입 총계		16,017,200	월지출 총계		11,395,403
수입 합계		36,202,570	지출 합계		36,202,570



5월 운영위원회 회의

5월 8일 당진환경운동연합 5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탄소중립 업무 협약식

5월 9일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24년 탄소중립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세종보 담수 중단 촉구 전국행동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세종보 담수 중단 촉구 전국행동에 참여했습니다.

6월 늘푸른물결 소식지 편집회의

5월27일 6월 늘푸른물결 소식지 편집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철강캠페인 활동가 워크숍 참가

지난 5월 28일~29일 1박 2일간 포항에서 철강 캠페인 활동가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1인 시위

5월 한달동안(19차~22차)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1인시위를 구터미널에서 매주 진행했습니다.



01 일반사업

- ❖ 6/01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환경교육한마당 - 당진시청 잔디밭
- ❖ 6/02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나도 시민과학자' 6차 '식물'모니터링 - 당산생태공원
- ❖ 6/03 충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대응 준비회의 - 온라인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23차 1인시위 - 구터미널 로터리
- ❖ 6/04 국민연금 탈석탄선언 이행 촉구 캠페인 - 국민연금 예산홍성지사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암모니아 혼소' 세미나 - 당진탄소중립센터 교육실
- ❖ 6/05 환경의 날 맞이 현대제철 LNG발전 반대 캠페인 - 현대제철 정문 앞
6월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6/07 당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정기회의 - 당진시청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24차 1인시위 - 구터미널 로터리
- ❖ 6/08 밀양 10주년,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 - 밀양 영남루
- ❖ 6/09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나도 시민과학자' 7차 '어류'모니터링 - 당진천
- ❖ 6/11 환경연합 신입활동가 연수 '당진화력' 현장 방문 안내 - 당진화력
에코생협 당진점 운영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 6/12 당진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위 회의 - 당진지속협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체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 ❖ 6/13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충남캠페인 - 당진화력 및 당진시가지
- ❖ 6/14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25차 1인시위 - 구터미널 로터리
- ❖ 6/16 '나도 시민과학자' 8차 '도종씨앗'모니터링 및 수료식 - 당진농업기술센터
- ❖ 6/19 베바스토코리아와 함께 하는 해변환경정화활동 - 석문방조제
충남환경연합 기후에너지특위 회의 - 온라인
- ❖ 6/21 석탄발전 폐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온라인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26차 1인시위 - 구터미널 로터리
- ❖ 6/22 2024년 2차 해변환경정화활동 - 대호방조제
- ❖ 6/24 녹색철강네트워크 회의 - 온라인
- ❖ 6/25~6/26 녹색철강캠페인 활동가 워크숍 - 광양
- ❖ 6/27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상반기 신입회원 만남의 날 - 사무실
- ❖ 6/28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27차 1인시위 - 구터미널 로터리
- ❖ 6/29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공연 - 삼화리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6월 24일(월)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현대제철 자가 LNG발전소 건설
- ❖ 합덕·순성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건설
- ❖ 석문간척지 축산단지 추진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 새내기 회원

이은향(원당동), 장경숙(보령시)

●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신영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경완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오화 권중원 길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병구 김병민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자 김용준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응영 김일권 김자현 김재성 김재진 김정곤 김정숙
 김정순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립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제민 맹봉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선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여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지예
 손창원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범 송하중 송한결 신경상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영진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유경자
 유난영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주홍 윤혜신 은승채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동현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범주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선미 이순영 이영근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석 이월 이은향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환 이종필 이종학 이준성 이중호 이중영 이진선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혜신
 이해운 이현숙 이혜슬 이호경 이훈 이홍숙 인광교 인만교 인현욱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병준 정분환 정봉식 정석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종한 정중섭 정치웅
 정희구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순형 조용재 조한영 조회두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채종국 천선희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서운 최석현
 최성기 최성욱 최세호 최수빈 최오상 최완택 최은진 최인호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효진 팽말숙 하용봉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흥 한문기 한미경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인욱 현민 호상기 홍기석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글로벌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대성종합공구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세실리아요양센터 울곡어린이집
 영축농장 정우건설(주) 해송

※ 6월 5일까지 입금기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해변 환경 정화 활동"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시민과 함께


지금 우리 바다는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온갖 인간들이 만들어낸 쓰레기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바다를 조금씩 변화 시키는 작은 실천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날짜 | 2024년6월 22일(토) 오전 9시

| 장소 | 대호방조제

- 9시 문예의전당 주차장 출발, 12시 당진 도착
- 일정은 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봉사시간 3시간 적용됩니다.
- 모자와 텀블러를 준비해주세요.
- 음료와 간식 제공해 드립니다.
- 선착순 40명
- 참가문의: 당진환경운동연합 041-355-7661

 당진환경운동연합

 나눔과 도전을 이어주는 힘입니다...
공익재단법인 지속가능 상생재단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날

한여름밤의 '난리 부르스' 공연

당진환경운동연합 소모임 '난리부르스'가 정기 여름 공연을 열고 회원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시 : 2024년 6월 29일(토) 저녁 6시 30분
- 장소 : 황성렬 전의장님 자택 (당진시 석문면 동지터로 340-15)
- 문의 : 041-355-7661 참가문의는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